

政-野 ‘쌀 값 대책’ 줄다리기

민주 “정부 쌀 의무 매입 ‘양곡관리법 개정안’ 26일 반드시 처리” 한 총리 “법제화 신중 검토 필요”... 정부, 25일 안정화 대책 발표

쌀 값 폭락으로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쌀 값 안정화 대책을 놓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팽팽한 줄다리기에 접어들었다. 정부는 과잉생산된 쌀을 의무 매입토록 법제화하는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 반응과 함께 오는 25일 쌀 값 안정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반면, 민주당은 쌀 값 정상화를 위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상당한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중점 법안으로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김수환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동의하느냐’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

민주당은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토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이어 “항구적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항구적인 제도가 경기적인 제도가 돼 버리는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민주당의 양곡관리법에 부정적 인식을 보였다.

이에 김 의원이 ‘농민이 열심히 일해서 수확을 많이 하고 풍년을 이뤄서 국민들한테 국민의 식량을 공급하고 있는데 초과 생산량이 발생했다고 정부는 시장에 방치하냐’라고 따져 묻자 한 총리는 “그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오랫동안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국제적으로 세계 통상질서에 중요한 파트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면서 최대한 농민들의 이익과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쌀값정상화 TF(태스크포스)’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번 정기국회 내 양곡관리법 처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했던 양곡관리법이 지난 20일 전체회의에서 여당의 반대에 막혀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며 “농업인의 생사가 걸린 쌀값 정상화를 위한 국회 입법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곡관리법 통과를 반대하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협조 요청을 보냈다. 이들은 “여당과 야당이 머리를 맞대고 쌀값 정상화를 위한 해결방안을 내야 한다”며 “여당 농해수위 위원들도 쌀 생산 농가의 절박한 마음을 이해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오는 26일 같이 합의해(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오는 25일 발표가 예정된 정부의 쌀값 안정화 대책을 본 뒤 논의를 이어가기로 국민의힘과 합의했다. 이에 농해수위는 오는 26일 전체회의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로 예정된 정부의 쌀값 안정화 대책이 주목된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임선숙 “스토킹 범죄, 정치권 책임 커”

민주당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임선숙 최고위원이 21일 “최근 서울 신당역에서 스토킹 범죄로 귀한 생명을 잃었다. 국가가 국민을 지켜주지 못했다. 정치권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임 최고위원은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최고 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 폐지, 처벌 강화 등을 담은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범죄를 차단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 구속영장 기간 시 조건부 석방, 스토킹 전담 경찰관 확대 배치 등 제도 개선책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신변의 위협을 느낄 때 확실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나라. 민주당이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임 최고위원은 이어 “코로나19 영향과 고물가·고금리로 민생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지역화폐 지원금을 전액 삭감했다는 소식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결재액 누계 4조7000억원인 부산시민 3명 중 1명이 사용하고 있는 부산지역화폐 ‘동백전’도, 누적 발행액 2조1700억원인 광주시 지역화폐 ‘상생카드’도 모두 국비 삭감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지역화폐 지원금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민생을 살리는 서민 예산이다. 명분도 실리도 약한 지역화폐 국비 지원 삭감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형석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 7700억”

정부와 지자체의 코로나 19 지원금이나 소상공인 지원금을 노린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지난해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이 최근 5년 이래 가장 많은 6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북구) 국회의원이 2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3만 982건, 피해액은 7744억원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정부지원금이나 저금리 대출 등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이는 ‘대출사기형’이 2만3965건으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를 속이는 ‘기관사칭형’ 7017건에 비해 3.4배 많았다. 특히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기관사칭형’ 피해액의 경



우 2017년 967억원에서 지난해 1741억원으로 1.8배 늘어났는데, ‘대출사기형’은 같은 기간 1503억원에서 6003억원으로 4배 증가했다.

경찰청 집계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 가운데 ‘대면 편취형’ 비중은 지난 2019년 8.6%(3244건)에서 지난해에는 73.4%(2만 2,752건)으로 7배 가량 증가했다.

이형석 국회의원은 “각종 정부지원금을 노리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들을 두 번 울리는 파렴치한 범죄”라면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김성환 후보자 차기 총선 출마 여부 ‘도마’

광주시의회,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후보 인사청문회

21일 열린 김성환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차기 총선 출마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회위원들은 이날 광주 동구청장을 지냈던 김 후보자가 최근 추측 명절을 앞두고 인사 수막을 광주 동구 관내 곳곳에 게시한 것을 문제 삼으며 차기 총선 출마설에 대한 집중 질의를 이어갔다.

강수훈 의원은 “김 후보자는 2016년부터 동구청장 출마를 시작으로 정당을 바꿔가며 4차례나 출마하는 등 전형적인 철세 정치인으로 광주환경을 책임지는 수장으로 적합한지 의문이다”며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후보자임에도 최근에는 ‘전 동구청장’ 명의로 시장 명절 인사 현수막까지 곳곳에 게시하는 등 차기 총선을 염두에 두는 행보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년 임기의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임기를 채우지 않고, 1년 뒤에 치러질 총선에 출마한다면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며 “이사장으로서 책임감 있는 태도와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명노 의원은 “환경공단 이사장에 취임한다면 3년 임기를 다 채울 것인지 약속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현재로서는 출마 생각이 없고, 이사장이 되면 책무를 성실히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시의회는 이날 임용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과 정책 소견, 업무 수행 능력 등을 면밀히 검증한 데 이어 오는 26일까지 청문 경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한 다음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내고, 시장은 보고서에 담긴 장·단점을 토대로 최종 임명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최권일 기자 cki@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가 21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2030부산엑스포 유치에 앞장서겠다고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잘못된 예산 바로잡겠다”

민주당, 부산서 현장 최고위 “지역주의 극복·균형 발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1일 “민주당이 나서 서민 삶을 악화하는 잘못된 예산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주재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예산 부족 핑계를 대지만, 연간 13조원 초부자 감세는 도저히 저

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지금 예산과 국정감사 시즌인데 부산 시민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국정이 상당한 난맥상을 보이는 게 아닌가 우려한다”며 “특권층 초부자 감세 등을 통해 우리 고통과 어려움을 원인을 더 심화시키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화폐와 노인 일자리 예산 삭감 등을 거론하면서 “원내에서 확실히 초부자 감세와 서민 예산 삭감을 저지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대한민국은 원래 서울과 부산, 대

구, 광주, 대전이 균형 발전을 해왔던 시절이 있었으나 최근 지나친 일극 체제, 수도권 집중에 지방 발전이 매우 저해되고 그 피해를 부산도 피해 가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앞으로도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에 이어서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균형 발전을 이뤄내는,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정치를 확실히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가덕 신공항을 반드시 2029년 완공해 부산발전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겠다”며 “특히 서부산 의료원 건립,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가 현실이 되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3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선 수 금 없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대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풍수 수강생 수시 사주 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택,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강(개별과정)
일시: 2022. 9. 13 (화) 오후7시
장소: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산수오거리 → 무등산방향입구우측2층)
수강료: 풍수 + 사주 20만원 (매월)

공개강좌(무료)
일시: 2022. 9. 6 (화) 오후7시
장소: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대상: 누구나 (선착순 00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액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2246-1508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여름의 뜨거운 열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광주·전남 같이 하실분 모집입니다.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